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음 8월 29일) 제238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주최한 '2019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가 2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3대 투자자로 손꼽히는 짐 로저스 비랜드 인터레스트 회장 및 세계 금융리더들이 개회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금융 성장가능성 조명

2019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투자의 전설’ 짐 로저스 회장,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세계 경제 영향력 있는 점을 활용하면
전북이 세계적 금융허브로 나아갈 수 있어”
세션 등에서 테크 파이낸싱·핀테크 등 제시

전북도가 글로벌 금융혁신 성장의 중심지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2019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가 2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금융혁신 성장의 중심 전라북도'라는 슬로건 하에 세계 금융리더 7인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으며, 국내외 금융전문가 및 금융업 종사자, 학계 전문가, 대학생 및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올해 두 번째 열린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는 금융계의 세계적 트렌드를 공유하고 전북의 금융산업 발전전략을 고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는 금융시장의 인디애나 존스로 불리우는 짐 로저스 회장을 비롯해, 이갈 에를리히 회장, 톨랜드 힌터코어너 파트너 등 영향력 있는 해외 유명인사들이 세계의 금융혁신을 논의하고 전북의 금융산업 성장 가능성을 조명하면서, 미래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는 전라북도 정책추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컨퍼런스는 세계3대 투자자로 손꼽히는 '투자의 전설' 짐 로저스 비랜드 인터레스트 회장의 기조연설로 문을 열었다.

'미래전북, 혁신금융을 선도하라'는 주제로 연설한 짐 로저스 회장은, 수많은 투자경험과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다 얻게 된 견문을 토대로 한국경제

의 동향과 전북의 가능성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세계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세를 통해 오히려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나라이며, 이를 잘 활용하면 경제 성장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전북이 세계적 금융허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개의 세션과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세션 I은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이 '글로벌 자산운용허브를 위한 연금의 역할'의 주제로 금융센터가 가지는 역사적·정치적·경제지리학적 요인을 분석하고, 연금의 국가별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통해 전북에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했다.

세션 II-1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을 이끄는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이 '금융 혁신시대의 새로운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투자를 결정하는 글로벌 트렌드 '테크 파이낸싱'을 소개하며, 전북이 이를 활용하

여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을 주문했다.

세션 II-2는 톨랜드 힌터코어너 올피 캐피탈 파트너가 '금융산업의 현재와 혁신의 미래'의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최근 금융산업에서 부상하는 핀테크는 은행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금융기관이 기존에 가진 경직적인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보안 등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전북 금융산업도 핀테크를 주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세계적인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춰 전북 금융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금융도시로의 평가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금융컨퍼런스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글로벌 수탁은행과 국내 금융기관의 전주 사무소 개소 등으로 전북혁신도시에 새로운 금융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북혁신도시가 세계 속

의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정치권, 언론, 학계가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가 국내외 금융전문가와 전북인의 네트워크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금융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금융혁신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김윤상 기자

전북도, 오늘부터 3일간 사과농가 돕기 장터 운영

전북도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올해 사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과 농가의 판로 개척을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도청 광장에서 '사과 소비촉진 특별판매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사과 주산지인 무주, 장수, 진안, 남원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가 제때 팔리지 못해 쌓인 재고물량 40톤을 소비할 계획이다.

이번 장터에는 '무주농협, 구천동농협, 장수농협, 장계농협, 백운농협, 진안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등 4개 시군·8개 농협이 참여해 시중가보다 40~5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농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

전북도,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민선7기 삼락농정의 대표 공약사업인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 인정과 지원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가칭) 농업 공익수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보람있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립농업'이라는 삼락농정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한 이후 수십 차례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기본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로서,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 휴식과 치유, 회복과 행복의 터전인 농촌에 대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농업농촌에 살아가는 우리 농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17년 헌법개정 문

동이 한창일 무렵,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이뤄지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과되기까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지원사업의 대상 설정, 지원방식, 그리고 시·군의 참여와 역할분담을 위한 협의 등의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논쟁과 우려곡절이 있었다는 과정도 소개하면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준 삼락농정위원회 전담팀과 함께 뜻을 모아준 도내 12개 농업인단체와 삼락농정위원회, 그리고 의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북도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광역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군 현장의 혼신 방지와 빈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북 농민이 모두 웃을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예술교육분야 국제포럼, 전주서 개최

11월 14일 팔복예술공장서 캐나다 등 3개국 연사 초청 프로그램 사례 등 발표

글로벌 문화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인 전주시가 미래세대를 상상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로 키우는 예술교육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을 연다. <관련기사 4면> 전주시는 오는 11월 14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예술교육 전주 국제포럼 2019'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예술교육분야 국제포럼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포럼은 '창조력, 상상력과 놀이, 미래세대를 위한 예술교육'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캐나다와 벨기에, 호주 등 3개국 예술교육 선진기관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초청돼 예술교육 공간운영 철학과 교육 프로그램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연사와 전주지역 예술전

문가, 교육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함께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시는 창의적인 예술교육도시 도약을 위해 '상상으로 쓰는 예술교육도시 전주', '예술이 놀이가 되는 즐거운 삶 구현'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전담조직(예술놀이팀)을 신설해 전주형 예술교육 모델개발과 예술교육 자원발굴, 예술교육 공간 조성 체계구축 등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번 국제 포럼을 계기로 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제포럼 개최도시로써 예술교육도시로서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처음 개최되는 올해 국제포럼을 성공리에 치러내 매년 세계적인 예술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지속가능한 예술 대표포럼으로 만들 계획이다. /송호철 기자

JJCTV 지방자치TV

| 지 | 역 | 문 | 화 | 콘 | 텐 | 츠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YouTube
KakaoTV
NAVER
Google
Ddum
ch.224
tv ch.253
B tv ch.285

JJCTV전북총국 : jjctvjeonbuk.com TEL :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222 송주빌딩 5F

JJCTV본사 : jjctv.co.kr TEL :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